

군산청년회의소, 청소년 리더십 아카데미 캠프

군산청년회의소(회장 김선호)가 지역 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2018 청소년 리더십 아카데미 캠프를 실시했다

청소년 리더십 아카데미 캠프는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적극적인 사고 방식과 행동을 통해 능동적인 성장을 도모하고 공동체 의식 향상을 위한 다양한 팀별 활동을 통해 동료애를 형성, 소통하는 방법을 배우기 위해 마련된 교육 프로그램이다.

지난 20일과 21일 군산청소년수련원에서 시행된 이번 행사에는 군산청년회의소 김선호 회장을 비롯한 임원들과 영광중 학생 및 교사 등 70여 명이 참여했다.

군산청년회의소는 이번 캠프를 통해 좀 더 수준 높은 교육과 활동을 통해 학생들의 꿈과 비전을 만들고 이룰 수 있는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밝혔다.

김선호 회장은 "청소년들이 적극적인 사고방식과 행동을 통해 능동적인 리더로 성장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군산=김정훈기자

익산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심폐소생술 교육 진행

익산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철원)에서는 23일 오후 8명의 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심폐소생술 교육을 진행했다.

이날 교육에서는 ▲응급처치의 필요성과 응급상황시 행동요령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이물제거의 한 기도폐쇄시 응급처치법 등으로 비단 참관식 교육에 그친 것이 아니라 실제 응급상황에서 정확하고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이뤄졌다.

교육 관계자는 "심폐소생술은 심장이 정지된 상황에서 심장과 뇌에 산소가 포함된 혈액을 공급해주는 중요한 응급처치로, 심장이 정지된 후 4~6분이 지나면 뇌에 혈액 공급이 끊기면서 뇌 손상이 빠르게 진행되므로 최초 목격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철원 위원장은 "심폐소생술이야말로 시민의 생명이 존각을 다루는 상황에서 귀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홍보와 정책적 지원을 통해 시민 서로가 서로의 생명을 지키는 익산 만들기 조성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시민 모두가 심폐소생술 등 응급구조 조치 방법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갖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익산=우병희기자

익산시, 폭염대비 긴급 대책회의 마련

시 소관부서·읍면동 폭염 추진상황 집중 점검 유기적인 협조 대응 방안 논의 농작물·가축보호 대책 점검 등 시민 재산피해 최소화 위한 사항 등 재점검

점등더위가 연일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익산시가 시민 건강을 위해 폭염대응에 나섰다. 익산시는 23일 익산시청 종합상황실에서 폭염피해 최소화를 위해 박철웅 익산시부시장 폭염 소관부서장 읍면동장 등 40명이 참석한 가운데 폭염 대응 긴급대책회의를 열었다.

무더위쉼터 운영관리, 폭염 취약계층 방문 건강관리, 영농작업장 및 건설공사장 무더위 휴식제 운영, 폭염 시민 행동요령 등의 인명피해 최소화 대책을 강구했다. 또한 농작물과 가축보호 대책도 점검하는 등 시민의 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한 폭염대응 전반에 관한 사항을 재점검하고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보완하기로 했다.

박철웅 부시장은 회의 참석자들에게 "폭염 대책이 효율적 추진되기 위해서는 소관부서와 읍면동과의 유기적인 협력 대응 중요하다"며 "시민이 건강하게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폭염에 대응할



익산시는 23일 익산시청 종합상황실에서 폭염피해 최소화를 위해 박철웅 익산시부시장, 폭염 소관부서장, 읍면동장 등 40명이 참석한 가운데 폭염 대응 긴급대책회의를 열었다.

것을 당부했다. /익산=우병희기자



군산시는 글로벌 여가 플랫폼 기업 (주)아놀자와 손을 잡고 도시재생뉴딜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군산시아놀자, 도시재생 뉴딜사업 투자협약

체류형 숙박시설 조성·관광 콘텐츠 연계 지역 상권 활성화·일자리 창출 이끌어내기로

군산시는 글로벌 여가 플랫폼 기업 (주)아놀자(대표 이수진)와 손을 잡고 도시재생뉴딜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대상자인 중앙동 일원은 수십 년째 방치된 한화 건설 부지(구 우봉화화)와 운행이 중지된 군산 화물선과 같은 폐 선로 등이 남아있는 곳으로 내항의 이전과 하굿둑 건설에 따라 소규모 선박 산업이 빠르게 쇠퇴했다.

이와 관련 군산시는 산업쇠퇴와 경제침체를 개선하기 위해 전통시장 이 밀집된 중앙동 일원으로 관광객들을 유입시키기 위한 전략을 바탕으로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공모하여 지난해 12월 최종 선정된 바 있다.

또한 지역인재 고용 및 육성, 지역 물품 활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민·관 협력을 통해 도시재생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군산시의 발전에 기여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대상자인 중앙동 일원은 수십 년째 방치된 한화 건설 부지(구 우봉화화)와 운행이 중지된 군산 화물선과 같은 폐 선로 등이 남아있는 곳으로 내항의 이전과 하굿둑 건설에 따라 소규모 선박 산업이 빠르게 쇠퇴했다.

이와 관련 군산시는 산업쇠퇴와 경제침체를 개선하기 위해 전통시장 이 밀집된 중앙동 일원으로 관광객들을 유입시키기 위한 전략을 바탕으로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공모하여 지난해 12월 최종 선정된 바 있다.

/군산=김정훈기자

찾아가는 착한 얼음생수 나눔 봉사

익산시 모현동 희망생수봉사단·새마을부녀회 내달 24일까지

익산시 모현동 희망생수봉사단과 새마을부녀회에서는 '찾아가는 착한 얼음생수 나눔 봉사'를 8월 24일까지 실시한다.

이번 나눔 봉사는 모현동 주민자치위원회 및 통장협의회, 모현동발전위원회, 농협중앙회 배산지점, 익산농협 모현지점, 기관장협의회, 사립다문화센터 후원회 준 생수(총 6000병)를 한 마을 단위로 나눠 나눠 국민은행 모현지점

및 농협중앙회 배산지점 앞에서 오후 2시부터 매일 200명(개소당 100명)을 무료로 나눠준다.

희망생수봉사단과 새마을부녀회 회원들은 얼음생수를 나눠주면서 10월 12일부터 29일까지 개최되는 제99회 전국체전과 제38회 장애인체전 홍보 리플릿을 동시에 배부한다.

이정순 희망생수봉사단장은 "덥고 힘들지만 계속되는 폭염으로 지쳐있는 주

민들에게 잠시나마 시원함을 느끼게 해주고 환한 미소로 감사인사를 해주는 주민들이 있어 행복하다고 말했다.

정기문 모현동장은 "찾아가는 착한 얼음생수 나눔 봉사에 지역 유관 기관·단체가 적극 참여해주셔서 감사하고 불철 더위속에서도 자발적으로 봉사활동에 참여해주신 회원들에게 고마울 뿐"이라고 말했다.

/익산=우병희기자

군산시의회, 현장방문 통해 집행부 추진사업 점검

군산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조경수)가 비 회기에도 불구하고 2일 간의 일정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편리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현장방문과 간담회를 추진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23일 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제99회 후 첫 현장방문으로 복지관광국 소관인 월명종합경기장, 신애원, 보건소 방역소독원, 발달장애 성인 평생학습관 및 장애인체육관, 근대역사박물관, 어린이공원을 차례로 방문해 주요 업무현황 및 애로사항 청취와 함께 주요시설을 돌아보며 시설운영에 따른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행복지위원은 "복지시설은 생계가 어려운 취약계층의 자활의 지고취와 특히 저소득층 가정의 어린이들의 양육에 어려움이 없도록 다각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또 '박물관은 근대화유산상을 기반으로 특색 있는 문화관광 콘텐츠 개발을 통한 생동감 있는 근대박물관이 조성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줄 것'과 "우리 군산이 관광의 메카로서 자리매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관계자들이 최선을 다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보건소 현장 방역소독 근로자 간담회에서는 "하절기 시민건강을 위협하는 각종 감염병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방역활동을 내실 있게 추진해 시민 건강을 지키는 파수꾼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24일에는 시립도서관, 예술의전당 및 시립예술단 연습실, 늘푸른도서관 등 6곳의 현장을 돌리보고 사업현안의 문제점과 보완사항에 대하여 개선책을 제시할 예정이다. /군산=김정훈 기자

익산시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시간 30분으로 단축

익산시가 2018년 전국체전을 앞두고 일련 주·정차 단속 유예시간을 8월 1일부터 기존 60분에서 30분으로 단축한다.

시는 "그동안 불법 주·정차 단속구간으로 지정된 구간 중 일렬주차시 60분이던 유예시간을 제99회 전국체전을 앞두고 교통질서를 바로 잡기에는 한계가 있다"면서 "도시·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긴 단속유예 시간을 30분 단축한다"고 시행 배경을 밝혔다.

시는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점심시간 유예시간은 12시부터 14시까지 기존과 같이 운영하며, 즉사단속 대상인 이중주차, 횡단보도주차, 버스승강장 주차, 인도주차, 익산역 등 교통취약 구간의 교통소통과 보행환경에 저해되는 불법 주·정차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 선진교통 질서를 확립할 계획이다.

/익산=우병희기자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

호소다이어트, 해독 프로그램 전문